

118th Grand Performance

Taking Over Letter

◦ Lighting team ◦

2018




Contents

1. 조명이란? 그리고 용어 정리

2. 하늘에 조명을 달고 라인변환과 조명 설치

3. 무대에 빛이 내리고 에어리어와 큐시트 작성

4. 그림자도 아름답다 마무리

 Adobe 에서 텍스트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조명이란?



캐스트 스스로 머리 위에 손전등을 달고 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무대가 기본적인 시각적 효과를 담당한다면 조명은 그 위에 빛을
덧씌운다. 즉, **영혼**을 담는다.

하지만 영혼을 담는 작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당신이 이미 조명에 들어온 이상, 당신은 조명을 옮기고, 조명을
천장에 달고, fantastic하게 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게다가 자신의 **안전**은 자신 스스로 챙겨야만 한다. 이 **take over
letter(인수인계서)**를 읽기 전에, 스스로의 다짐과 각오를
재점검해보자. 준비가 되었다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58기 이동건

59기 김민수 송석호 이예은

P.S. 김민수씨는 2019년 기준 4학년이라 연락이 힘듭니다.



1. 조명이란?



일반적으로 극회 조명팀의 초반부는 여유로운 편이다.

라인변환하는 법과 콘솔 작동법을 배운다면, 그리고 여러
인수인계서들을 반복하여 정독한다면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
인수인계서들을 통해 시연회나 공연 조명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는지 알아야 한다.



P.S. 조명과 무대는 하나다. 조무래기 파이팅!



1. 조명이란?

디지털



이번 조명에는 극히 최초로 디지털 콘솔과 디지털 LED 조명(?)을 도입했다. 디지털 콘솔에 관한 기본적인 사용설명서는 다른 파일을 통해 소개했다. 그 이상의 기능, 그 이상의 performance를 보여주고자 할 경우,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디지털 콘솔 인수인계서 파일은 이것이다 >



디지털 LED 조명은 Red, Green, Blue 세 가지 색 RGB를 조합함으로써 기존의 젤라틴을 사용하지 않고도 원하는 색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아날로그 조명이 켜다/끄다 의 상당히 수동적이고 평면적인 효과에 갇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디지털 조명은 여러가지 효과들을 동시에 저장하고 구현함으로써 마치 콘서트처럼 화려하고 자동적이며, 입체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헤드뱅잉은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명확히 기존 아날로그 조명의 한계를 돌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날로그 조명의 파워, 즉 밝기가 세다. 디지털 조명은 최신식 IT 기기로 무장한 젊은 20대라면, 아날로그 조명은 노련하고 중후한 중장년층 느낌. 구관이 명관이다.



1. 조명이란?



용어 정리

라인 : 조명과 채널/콘솔을 연결하는 선

채널 : 교내 극장에 원래 비치되어 있는 콘솔에 조명을 연결하였을 때, 콘솔을 통해 각 채널별로 각각의 조명을 다룰 수 있다. 24채널, 25채널 이런 식으로. 읍전에서 극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콘솔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

콘솔 : 디머라고도 한다. 모든 조명을 다루는 기기. Command center.

바 : 조명을 설치하는 긴 막대. 채널이 적혀 있다.

대파 : 넓은 영역을 비추기 위한 조명기기의 한 종류.

엘립 : 좁은 영역을 비추기 위한 조명기기의 한 종류.

큐시트 : 캐스트에게 대본이 있다면, 우리에게 큐시트가 있다. 극이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조명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



1. 조명이란?



용어 정리

젤라틴 : 보통 대파에 사용되는 색 필터. 색조명을 사용할 때 쓴다.

뒤깍이 : 조명과 음향만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리허설하는 것을 말한다. 무대 설치 후에 진행된다.

에어리어를 잡는다 : 조명들을 무대에 비추어 무대에 어두운 부분이 없게끔, 혹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없게끔 영역을 정한다. 보통 왼쪽 조명으로 (엇갈리게) 무대의 오른쪽을 비춘다.

DI / DO : Deem in은 서서히 켜고, Deem out은 서서히 끄고

CI / CO : Cut in은 바로 팍 켜고, Cut out은 바로 팍 끄고



2. 하늘에 조명을 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118회 대공연 '대학살의 신'에는 많은 조명 효과가 필요 없었다. Scene이 단 하나라 장면 전환(암전)이 필요 없고, 기타 화려한 조명 효과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나 장면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저 기본 조명 아래에서 배우들의 호흡과 연기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쪽- 밀고 나가는 어마어마한 극이었다.

대본 확정 후

무대 디자인 확정 후

작품 분석

조명 효과

조명 디자인

(스텝 회의가 진행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무대 조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기주도학습(?)과 가장 기본적인 라인변화 및 콘솔 작동법 익히는 일을 빼먹어서는 안 된다!!!!

무슨 조명을 몇 개 사용할 것인지? 각각 어디에다가 비출 것인지?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부족한 건 무엇인지?



2. 하늘에 조명을 달고

대본 확정 후

무대 디자인 확정 후

작품 분석

조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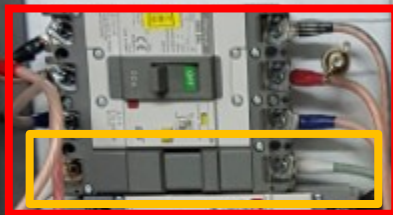
조명 디자인

사실 118회 대공연 조명팀은 초반부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콘솔 때문이다. (콘솔의 작동 여부는 당연히!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콘솔을 점검해 보았을 때, 일부 대파가 터져버려서 [화인기기] 사장님께 수리를 맡겼었다. 하지만 콘솔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셔서 문제의 원인은 결국 울전 소강당의 전원 공급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그리고 두번째 점검 때 사건이 터져버렸다. 연결 도중 조명이랑 콘솔이 팽!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다시피 터져버린 것. 진짜 깜짝 놀랐다. 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전원을 공급할 배선반에서 콘솔까지 라인을 연결할 때 4개 중 위에 두 개(빨강, 검정)에서 따와서 그런 것이었다. 만약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류가 흘렀다면 즉사할 정도의 전압이 걸렸다. 결론은, **꼭 두 개의 라인 중 하나는 흰색**에서 따와야 한다. 다음 페이지 사진을 참조.



2. 하늘에 조명을 달고

꼭!!
흰색!!!



2. 하늘에 조명을 달고

대본 확정 후

무대 디자인 확정 후

작품 분석

조명 효과

조명 디자인

그렇게 터져버린 콘솔은 다시 수리를 맡겼고, 안에까지 몽땅 타버려서 10만원의 수리비를 써야만 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로 조명 팀장이 절연 장갑 3켤레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조명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을 꼭 착용합시다!!



2. 하늘에 조명을 달고

울전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와 명륜에서 사용하는 플러그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변환이 필요한 것이다. 아래는 기본으로 필요한 것들!



◀ 커터칼



절연테이프 ▶



◀ 드라이버(+,-)



가위 ▶



◀ 롱노즈 플라이어



▶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2. 하늘에 조명을 달고

추가로 있으면 좋을 것들.. (개인적인 바램, 군대에서 쓰더라구요)



절연 튜브, insulation tube라고 한다. 전선의 절연과 보호, 피로도 완화를 위해 사용한다. 양쪽 전선들을 연결하고 절연테이프로 칭칭 감아줄 필요 없이, 이거 씌우고 heating gun을 사용하면 알아서 수축해서 완전히 밀착한다. 진짜 싸다. 여러 개에 몇백 원도 안 한다.



2. 하늘에 조명을 달고



추가로 있으면 좋을 것들2.. (개인적인 바램, 군대에서 쓰더라구요)



열풍기, heating gun이라고 한다. 브랜드 제품은 58000원, 이름 모를 중소기업 제품은 2만원 대도 있는 듯하다. 한 번 사면 망가질 일 없이 몇 년, 몇 십년을 사용할 수 있으니 비싼 가격은 아니다. 방금 소개한 **절연 튜브**를 가열하여 수축하게 만든다. 섭씨 500도까지 가열할 수 있다. 섭씨 100도 정도만 되도 절연 튜브는 충분히 수축한다. 헤어 드라이기로 시도는 안 해봤는데 좀 시간을 들이면 될 지도..? 헤어 드라이기 업그레이드 버전. 저걸로 머리 말리면 진짜 뜨겁다.



2. 하늘에 조명을 달고



추가로 있으면 좋을 것들3.. (개인적인 바램, 군대에서 쓰더라구요)



인두기 풀셋트

검색해보니까 이 인두기 풀셋트가 15000원 밖에 안 한다. (공대생이라면 납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납땜만 할 수 있으면 라인 변환이 잘 안돼서 계속 플러그 까보고 연결 확인해보고 할 필요 전혀 없다. 구리선들 만지다가 찢릴 일도 없고, 연결해주고자 하는 양쪽의 구리선들을 일일이 열심히 꼬아주다가 멘탈 나가서 내 몸 속 내장들까지 꼬아줄 필요 없다. 크리고 필자는 절대 업체 홍보하는 게 아니다. 돈 안 받았다. 납땜하면 분리도 쉽다. 땀남(납-주석 합금)의 녹는점이 다른 금속들에 비해 매우 낮아 인두기로 갖다 대주면 땀남만 녹기 때문이다 ^^ 필자는 화공과가 아니다.



2. 하늘에 조명을 달고



대본 확정 후

무대 디자인 확정 후

작품 분석

조명 효과

조명 디자인

이번 공연은 아날로그 콘솔과 디지털 콘솔, 아날로그 대파와 디지털 LED 조명을 함께 사용했다. (대파 5EA, LED 조명 4EA) 따라서 operation을 볼 때 두 가지 콘솔을 함께 조작해야 한다. 명륜 극장 자체 콘솔을 다루는 방법은 이전 인수인계서에 잘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인수인계서를 안 읽고 가더라도 직접 가서 한 번 보면 매우 쉽기 때문에 바로 터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하늘에 조명을 달고



울전에서는 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 강당 오른쪽 벽면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위에 올라가서 직접 바 위에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자. 1순위가 감전사, 2순위가 낙사다.** 노끈과 테이프 심을 이용하여 마치 도르래처럼 **각종 도구를 비롯하여 조명들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준다. 위에 올라간 사람은 이를 받는다. 조명 설치가 끝나면 **미리 원활한 작동을 확인한 라인**을 대파에 연결해 사다리 쪽으로 쪽 늘어뜨린다. 아래에서 보았을 때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케이블 타이** 등으로 잘 정리, 고정한다. 위에 여러 라인들이 어수선하게 늘어져 있으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자칫 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지면..^^



울전에서 아날로그 조명들을 콘솔에 연결할 때 **처음과 끝이 왼쪽 그림과 같은 라인**을 사용한다. 하나의 선에서 나오는 여러 갈래의 선들로 다수의 조명기기를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콘솔에 연결할 때도 각각의 채널에 연결한다. 이 때, 조명의 채널 번호를 기억해두자. 이모씨(97)은 이를 두고 [히드라]라고 묘사했다..



2. 하늘에 조명을 달고

대본 확정 후

무대 디자인 확정 후

작품 분석

조명 효과

조명 디자인

명륜에서는 라인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바에 플러그를 꽂으면 되기 때문이다. 바에 조명을 걸기 위해선 사다리를 이용한다. 울전보다는 안전하다. 자동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바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찾아 눌러서 내려주도록 하자. 조명 설치 작업 전에 미리 **사다리 구비 여부**를 확인해두자.



디지털 조명의 경우에는 명륜이나 울전이나 마찬가지로 220V 멀티탭을 이용하여 조명기에 전원을 공급한다. 디지털 LED 조명이 220V 사용 기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넓고 고르게 사용하기 위해선 **길이가 바 전체를 덮을 정도로 무척 길고 콘센트가 분리되어 있는 멀티탭**일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그런 멀티탭이 극회에 존재한다. 마치 애벌레처럼, 원형 콘센트 1개가 일정 간격으로 넓게 배열되어 있는, 전체 길이가 매우 긴 멀티탭이 있다. 우린 울전에서 그것을 사용하였다.



3. 무대에 빛이 내리고



조명 설치 작업이 모두 끝났으면 **에어리어를 잡자**. 에어리어 잡기 전에 조명을 설치할 때도 미리 생각해둔 대로 조명을 배치하고 각도를 좀 잡아준다면 한층 수월하다. 연출님과 무대감독님, 위에서 조명 각도/위치를 조정할 사람과 아래에서 조명 하나하나를 제각각 켜고 끌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대에서 서있는 사람 혹은 무대에서 봐주는 사람도 있으면 좋다. 에어리어 잡는 과정은 앞서 언급했듯이, **조명 하나하나 비추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조명이 무대의 벽과 바닥에 잘 묻어나오게, 어두운 부분 하나 없이 모두 환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조명이 매우 뜨거우므로 작업을 끼고 조정하길 권장한다. 필자는 깜빡하고 안 들고 올라가 그냥 맨손으로 뜨겁게 했다..

이번 '대학살의 신'은 큐시트를 짤 정도로 조명 효과가 많이 있지 않았다. 앞선 공연들의 인수인계서를 통해 큐시트 작성법과 TIP을 확인하도록 하자.



4. 그림자도 아름답다



그래도 여차여차 극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합평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식사할 수도 있겠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그깟 대파나 콘술이 뭐가 중요한가? 진짜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조명 기기 다룰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 위로 올라가지 말자. 바 위에선 천천히 걸더라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유지하자.

조명팀 들어온 것에 자부심을 갖자.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여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저 달처럼, 무대 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에 그들이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다.

당신이 그 어느 팀에 들어가 어느 역할에 충실하든,
장담하건대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밤하늘을 수놓는
별이다. 별 하나로는 하늘이 좀 밋밋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수많은 별들이 모여 스스로 빛나고, 서로를 비춰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장관은 없다. **성균극회 파이팅!**



The End

Thank you

